

노조 출범 4개월 7차례 교섭 진행 회사는 변하지 않았다

노동조합을 'Partner'로 대하지 않는 태도는 교섭대표가 바뀌고, 단협안을 일독하는 동안에도 여전했다.

공동성명(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네이버지회)은 8월 20일(월) 그린팩토리 26층에서 네이버와 7차 교섭을 진행했다. 교섭대표 교체 후 2주 만에 열린 교섭은 오후 3시부터 4시간 넘게 이어졌다. 채선주 교섭대표는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운을 뗐지만, 실제 교섭 과정에서 조금만 조정하면 합의할 수 있는데도 그 조차도 조정하지 않으며,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을 보여 그 진정성을 의심케 했다.

7차 교섭은 5차 교섭에서 검토하지 못한 노사 양측의 단협요구안 나머지 조항을 일독했다. 핵심쟁점은 사외이사에 대한 노동조합 추천권 보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구성, 복지후생에 대한 회사안 제출 요구였다.

"셀프추천 사외이사, 연봉도 셀프 인상!?"
노동조합의 사외이사 추천권 요구는 주요 경영사안을 결정하는 사외이사의 투명한 운영을 위

해 제출했다. 현재 네이버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를 현재의 사외이사가 추천 및 선정하는 셀프추천 구조다. 오세운 지회장은 "지금까지 했던 이사회 의결사항을 보면 보완의견 하나를 제외하곤 모두 가결인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며 "특히, 2018년에는 연봉을 6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스스로 올렸다"고 지적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안위) 구성은 직원들의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하며 관련 법에 따라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사측은 "사무직은 설치의무에서 제외되는 규정이 있다"며 관련 법조차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다.

회사 측의 복지 안 제출은 여전히 복지부동이다. 제출 기한인 7월 26일에서 한 달이 다 돼가는 시점임에도 사측 안은 제시하지 않고 '재원' '인원수 증가' 등을 핑계로 안 제시 일자조차 확실하지 않았다.

사측, "네이버에 고용보장이 필요한가?"

공동성명은 단체교섭안에서 직원들의 안정적인 고용보장을 위한 항목도 교섭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사측은 '고용보장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제외한 것도 부족해 한 사측 교섭위원은 "네이버에서 고용보장이 꼭 필요한 것인가 싶다"는 실언을 하기도 했다.

공동성명은 사측의 시간 끌기와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에도 불구하고 추석 전 교섭 타결을 목표로 조합원만 바라보며 흔들림없이 끈기있게 나아갈 것이다.

◆교섭위원 명단

노측 교섭대표 : 임영국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사무처장
교섭위원 : 오세운 지회장, 박상희 수석부지회장, 정민철 수석부지회장, 정한룡 사무장, 전희승 조직국장, 김정열 화섬 교섭실장
사측 교섭대표 : 채선주 NAVER I&S 대표이사
교섭위원 : 방미연 People&Cooperation 리더, 김영준(P&C), 조성근(P&C), 최혜원, 이희만(법무.변호사), 이정훈 노무법인에이치 대표

교섭진행 현황표

8월 21일	
컴파트너스	2차교섭 진행 예정
8월 28일	
NBP	2차 교섭 진행 예정
8월 30일	
NAVER	8차교섭 진행 예정



<2018.08. 20 정회시간 단체교섭안을 살펴보는 박상희 수석 부지회장>

노조가입원서 및 조합비 CMS동의서

이름	성별	생년월일	
_____	○ 여자 ○ 남자	_____	
소속회사	근무팀	전화번호	
_____	_____	_____	
조합비	출금일	은행명	계좌번호
30,000원 (월간)	일	_____	_____

※ 카카오뱅크, K뱅크 및 제 2금융권은행은 CMS등록이 불가능 합니다. 유의해주세요.

- CMS 출금 이체동의 제 3자(금융결제원)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동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동의

본인은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의 선언, 강령 등에 동의하고, 노동조합 가입을 신청하며 노조활동 및 조합비 CMS신청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인)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네이버지회) 위원장 귀하

CMS 출금 이체동의

- 위의 본인(예금주)이 납부하여야 할 요금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 없이 본인의 지정출금계좌에서 수납기관이 정한 지정 출금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출금대체 납부 하여 주십시오.
- 출금이체를 위하여 지정출금계좌의 예금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금청구서나 수표 없이 출금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 하여도 이의가 없습니다.
- 출금이체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자동대출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이 지정 출금일 현재 수납기관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또는 약정대출 의 연체 등으로 대체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의 손해는 본인의 책임으로 하겠습니다.
- 지정출금일에 동일한 수종의 출금이체청구가 있는 경우의 출금우선순위는 출금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 출금이체 신규신청에 의한 이체개시일은 수납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 출금이체신청(신규, 해지)은 해당납기일 30일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출금이체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수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키로 하며 출금요구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과 수납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키로 합니다.
- 출금이체금액은 해당 지정출금일 은행 영업시간 내에 입금된 예금(지정출금일에 입금된 타점권은 제외)에 한하여 출금처리 됩니다.
- 이 약관은 신청서를 수납기관에 직접 제출하여 출금이체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나이스페이먼츠(주) 자동이체서비스를 통한 요금 수납, 민원처리 및 상담요청 응답
- 수집항목 :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예금주주민번호앞6자리, 이메일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 이용 동의일로부터 자동이체서비스 종료일(해지일)까지며, 보유는 해지일로부터 5년간 보존 후 파기(관계 법령에 의거)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시 자동이체서비스 신청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 문자(SMS)발송 동의

- 자동이체 동의 및 처리결과 안내(휴대폰 문자전송)송부에 동의합니다.

※ 금융거래정보의 제공동의서

◇ 본 신청과 관련하여 본인은 금융거래정보를 출금이체를 신규 신청하는 때로부터 해지 신청할 때까지 상기 수납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동의 합니다.

※ 가입서 기입 후 사진을 찍어, 카카오 플러스친구'네이버노조'로 보내주시면 가입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 가입은 개별적으로 본인 확인 전화 후 승인이 됩니다. 스태프의 전화를 받아주세요.
 ※ 노동조합 가입은 naverunion.com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